<h1>나 혼자만 레벨업-56화</h1>  
  
  
 <div class="k37493e0ee2">  
  
  
  
   
  
   
  
   
<p>56화</p>  
<p>돈도 확인했고.</p>  
<p>큰맘 먹고 백화점에서 정장을 한 벌 맞춘 진우는 그래도 시간이 남자 근처 헤어숍에서 덥수룩한 머리까지 정리하고 나왔다.</p>  
<p>"흠."</p>  
<p>집을 나설 때와는 아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.</p>  
<p>'돈이 좋긴 좋구나.'</p>  
<p>옷이 날개라더니.</p>  
<p>진우는 길가 쇼윈도에 비친 본인의 모습을 감상하다 한번 어깨를 으쓱거렸다.</p>  
<p>이 정도면 준비는 완벽했다.</p>  
<p>'적어도 나쁜 인상을 남기진 않겠지.'</p>  
<p>간단히 옷매무새를 다듬다가 폰으로 시간을 확인해 봤더니 오후 4시 20분.</p>  
<p>'5시까지 오라고 했으니까.'</p>  
<p>바로 출발하면 얼추 시간이 맞다.</p>  
<p>"택시."</p>  
<p>택시를 잡아탄 진우는 동생이 말한 시간에 맞춰 여유 있게 학교 앞에 도착했다.</p>  
<p>마중 나와 있는 진아의 모습이 보였다.</p>  
<p>"성진아."</p>  
<p>뒤늦게 진우를 발견한 진아가 깜짝 놀랐다.</p>  
<p>"오빠?"</p>  
<p>진아는 토끼 눈을 뜨고는 물었다.</p>  
<p>"성... 성진우 씨 맞으세요?"</p>  
<p>"너는 오빠도 못 알아보냐?"</p>  
<p>진아가 놀라듯 진우를 위아래로 훑어보다 소리를 높였다.</p>  
<p>"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으니까 그렇지!"</p>  
<p>"그럼 동생 담임선생님을 뵙는데 추리닝에 슬리퍼 끌고 오랴?"</p>  
<p>"와아..."</p>  
<p>진아는 여전히 입을 다물지 못했다.</p>  
<p>"그러다 턱 떨어지겠다, 먼저 간다."</p>  
<p>동생이 안내할 생각이 없어 보이자 진우는 그냥 자기가 앞장을 서 버렸다.</p>  
<p>5년 전엔 진우도 이 학교 학생이었다.</p>  
<p>내부는 빠삭했다.</p>  
<p>어차피 교사가 학부모를 만날 장소라면 교무실 아니면 상담실인데, 오늘은 진학 상담을 해야 한다고 했으니 상담실 쪽으로 가면 되겠지.</p>  
<p>성큼성큼.</p>  
<p>진우의 걸음이 빨라졌다.</p>  
<p>"오, 오빠! 같이 가!"</p>  
<p>진아는 급히 진우를 뒤쫓았다.</p>  
<p>"안녕하세요, 선생님."</p>  
<p>"에? 예. 안녕하세요."</p>  
<p>가는 도중 진우는 몇몇 선생들에게 인사를 건넸다.</p>  
<p>선생들은 하나같이 멈춰 서서 진우를 돌아봤다.</p>  
<p>'누구였지?'</p>  
<p>'졸업생? 저렇게 눈에 띄는 학생을 잊을 리가 없는데.'</p>  
<p>'신입 교사인가?'</p>  
<p>돌아보는 건 선생들뿐만이 아니었다.</p>  
<p>"와, 잘생겼다."</p>  
<p>"누구지?"</p>  
<p>"같이 있는 애 진아 아니야?"</p>  
<p>"진아 오빤가 봐. 멋있다."</p>  
<p>훤칠한 체격과 세련된 정장.</p>  
<p>평범한 외모로도 여학생들이 돌아보게 만들 만큼 시너지 효과가 대단했다.</p>  
<p>정작 진우 본인은 관심이 없었지만.</p>  
<p>'...'</p>  
<p>진우는 여학생들의 수군거림을 한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며 걸었다.</p>  
<p>오히려 신이 난 쪽은 진아였다.</p>  
<p>귀를 쫑긋 세우고 히죽히죽 웃으며 주위의 평가를 귀담아듣던 진아는 앞서가던 진우에게 살짝 붙어 서서는 팔꿈치로 옆구리를 쿡쿡 찔렀다.</p>  
<p>"이야. 오빠 인기 좋네?"</p>  
<p>첫 번째는 무시했다.</p>  
<p>"그러고 보니 오빠 아직 여친 없지?"</p>  
<p>두 번째도 무시했다.</p>  
<p>"이 동생이 귀여운 여고생 하나 소개시켜 줄까?"</p>  
<p>세 번째에, 진우는 무표정한 얼굴로 동생의 볼을 꼬집었다.</p>  
<p>"까불지 말고."</p>  
<p>"죄... 죄송합니다."</p>  
<p>진우가 볼을 놔주자 진아는 빨갛게 된 뺨을 문지르며 볼멘소리를 했다.</p>  
<p>"칫, 자기도 좋으면서..."</p>  
<p>투덕거리며 걷다 보니 금방이었다.</p>  
<p>진우를 앞질러 나간 진아가 상담실 앞에서 빙그르르 돌아섰다.</p>  
<p>"오빠, 여기야."</p>  
<p>안으로 들어가려던 진우가 진아를 돌아보았다.</p>  
<p>진아는 움직일 생각이 없어 보였다.</p>  
<p>"너는?"</p>  
<p>"선생님과 학부모 일대일 상담. 오빠 들어가는 거 보고 교실로 갈려구."</p>  
<p>아.</p>  
<p>진아 말을 듣고 보니 진우도 고3 때 그 비슷한 걸 했었던 기억이 났다.</p>  
<p>당시 아무도 모셔 오지 못했지만.</p>  
<p>'그때부터 슬슬 어머니께서 거동이 불편해지셨으니까.'</p>  
<p>부쩍 입원하는 일이 잦아진 어머니.</p>  
<p>괜히 무리하실 것 같아 상담이 있다는 걸 알리지 않았고, 덕분에 담임의 성화에 한동안 시달려야 했다.</p>  
<p>그때를 떠올리면 진아가 그렇게 초조해하던 이유도 이해가 갔다.</p>  
<p>진우가 씩 웃으며 물었다.</p>  
<p>"오늘도 야자하지?"</p>  
<p>"응. 오빠 먼저 집에 가."</p>  
<p>"오냐."</p>  
<p>진우는 기습적으로 진아의 머리를 헝클어뜨리듯 쓰다듬었다.</p>  
<p>"공부 열심히 하고 와라."</p>  
<p>"아, 하지 말라니까."</p>  
<p>"집에서 봐."</p>  
<p>씩 웃던 진우가 상담실 안으로 사라졌다.</p>  
<p>진아는 머리를 만지며 볼을 부풀렸다.</p>  
<p>"언제까지 어린애 취급이라니까..."</p>  
<p>그래도 내심 싫지만은 않은 기색이었다.</p>  
<p>혹시 본 사람은 없었을까?</p>  
<p>주위를 두리번거리던 진아는 아무도 없다는 걸 확인하고서야 마음이 놓인 듯 총총걸음으로 교실을 향했다.</p>  
<p>\*\*\*</p>  
<p>진아 담임선생님의 첫인상을 한마디로 말하자면.</p>  
<p>'음...'</p>  
<p>참 후덕해 보이셨다.</p>  
<p>"진아 오빠 분?"</p>  
<p>인자하게 생긴 중년의 여선생님이었다.</p>  
<p>밝은 미소가 보는 사람까지 기분 좋게 만드는 그런 인상.</p>  
<p>사정을 알고 있는지 진우가 학부모 자격으로 온 것을 전혀 의아해하지 않았다.</p>  
<p>"안녕하세요. 진아 담임입니다. 진아가 이렇게 멋진 오빠분을 숨겨 두고 있었네요, 호호."</p>  
<p>여선생의 넉살 좋은 인사에 진우도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.</p>  
<p>'못 보던 분인데.'</p>  
<p>아마 자신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전근 온 선생님인 듯했다.</p>  
<p>사람의 인상은 첫 만남부터 거의 결정된다고 하던가?</p>  
<p>인사를 주고받고 나니 어느 정도 마음이 놓였다.</p>  
<p>'한참 어린 내게 꼬박꼬박 존대를 붙여 주는 것도 그렇고.'</p>  
<p>동생의 고3 시기가 잘못 만난 선생님 때문에 괴롭지는 않을 듯했다.</p>  
<p>"여기 앉으세요."</p>  
<p>그녀는 의자를 권했다.</p>  
<p>맞은편의 의자를 뺀 진우가 큰 책상 하나를 두고 진아의 담임과 마주 앉았다.</p>  
<p>"진아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네요."</p>  
<p>담임과 학부모 사이에서 오갈 수 있는 평범한 이야기들.</p>  
<p>좋은 분위기에서 대화가 오갔다.</p>  
<p>진아가 워낙 모범생이라 진우와 여선생이 서로 언성을 높일 이유가 없었다.</p>  
<p>"진우가 의대를 목표로 하고 계신 건 아시죠?"</p>  
<p>"네."</p>  
<p>여선생은 준비해 뒀던 자료를 읽어갔다.</p>  
<p>"모의고사 성적도 좋고, 내신 성적도 우수한 편이라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. 그렇다고 너무 애한테 부담감 주진 마시고요."</p>  
<p>진우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.</p>  
<p>선생의 들뜬 얼굴에서 진아에 대한 기대감이 물씬 풍겨 나왔다.</p>  
<p>사실 고3 담임들도 학생들 성적에 따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한다. 학생들의 인생이 걸린 문제니까 신경 쓰이는 건 당연한 일이다.</p>  
<p>'그래서 보통 고3 담임은 피하려고 한다던데.'</p>  
<p>남선생님들이 억지로 떠맡듯이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다.</p>  
<p>그걸 감안하면 지금 진아의 담임은 열정이 넘치는 분이라 할 수 있었다.</p>  
<p>보호자 입장에서는 고마운 일이었다.</p>  
<p>열정은 곧 관심으로 이어지니까.</p>  
<p>15분쯤 됐을까?</p>  
<p>상담은 순조롭게 끝나가고 있었다.</p>  
<p>"그럼..."</p>  
<p>진우가 분위기를 봐서 일어서려는데 눈치를 살피던 선생이 조심스럽게 질문해 왔다.</p>  
<p>"오빠 분은 헌터 일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."</p>  
<p>갑작스럽게 진지해진 선생의 눈빛.</p>  
<p>뭔가 있구나.</p>  
<p>진우는 직감했다.</p>  
<p>"네."</p>  
<p>"만약... 진아가 각성자 판정을 받는다면 진아에게도 헌터 일을 시키실 건가요?"</p>  
<p>"아니요."</p>  
<p>절대.</p>  
<p>진우는 단호히 말했다.</p>  
<p>고민할 필요도 없었다.</p>  
<p>뭔가 있겠다는 짐작대로 선생의 표정이 확연히 무거워졌다.</p>  
<p>"역시나..."</p>  
<p>진우가 의아하다는 눈빛을 보내자, 선생은 결심을 굳힌 듯 말을 꺼냈다.</p>  
<p>"실례가 아니라면 제가 부탁을 하나 드려도 될까요?"</p>  
<p>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.</p>  
<p>"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..."</p>  
<p>일단은 들어나 보자.</p>  
<p>그래도 동생의 담임인데 들어 보지도 않고 단칼에 잘랐다간 나쁜 인상을 남길 수 있으니까.</p>  
<p>행여 진우의 마음이 바뀌기라도 할까 봐, 여선생은 빠르게 말을 이었다.</p>  
<p>"여학생 중 하나가 각성자 판정을 받고서 학교를 그만두려고 해서요. 지금은 등교도 안 하고 있고요."</p>  
<p>'아하.'</p>  
<p>흔한 일이었다.</p>  
<p>헌터가 하는 일을 직접 체험해 보지 못한 각성자들은 자신이 남과 다르다는 생각에 들떠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경우가 생긴다.</p>  
<p>각성하더라도 헌터로서 이름을 날리고 큰돈을 버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 말이다.</p>  
<p>선생은 한숨을 푹 내쉬었다.</p>  
<p>"이대로 결석이 계속되면 학교에서도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거든요. 헌터가 되더라도 졸업장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?"</p>  
<p>진우는 동의한다는 의미로 고개를 끄덕였다.</p>  
<p>그 긍정적인 반응에 선생의 얼굴이 조금은 밝아졌다.</p>  
<p>"그 애가 졸업이라도 할 수 있게 설득을 좀 해 주시지 않겠어요?"</p>  
<p>선생님은 애써 미소를 지었다.</p>  
<p>진우가 궁금한 건 하나였다.</p>  
<p>"그 학생 각성자 등급이 어떻게 나왔습니까?"</p>  
<p>"듣기로는... 가장 낮은 등급이라고..."</p>  
<p>E급.</p>  
<p>'...얼마 못 가서 죽겠군.'</p>  
<p>진우는 속으로 혀끝을 찼다.</p>  
<p>원래라면 던전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조심해야 되는 랭크였다.</p>  
<p>들뜬 마음으로 섣불리 발을 들였다가는 십중팔구 불구가 되거나 죽게 된다.</p>  
<p>동생과 또래인 아이가 그런 일을 겪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은 분명 가슴 아픈 일이었다.</p>  
<p>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본인의 선택.</p>  
<p>누구도 강요하지 않았다.</p>  
<p>안타깝긴 해도 부족한 시간을 쪼개 타인의 결정에 간섭하고 싶지는 않았다.</p>  
<p>'설득에 성공할 자신도 없고.'</p>  
<p>대부분 좋은 소리도 듣지 못하니까.</p>  
<p>진우는 그렇게 거절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.</p>  
<p>그런데.</p>  
<p>"...라고 하면 진아도 알 거예요."</p>  
<p>선생의 입에서 학생의 이름이 나오자 쉽게 일어설 수가 없었다.</p>  
<p>진우는 다시 한 번 확인했다.</p>  
<p>"선생님, 그 학생 이름이?"</p>  
<p>"...요. 혹시 그 애를 아세요?"</p>  
<p>"..."</p>  
<p>한국이 좁긴 좋구나."</p>  
<p>'허...'</p>  
<p>진우는 말문이 막혀 왔다.</p>  
<p>\*\*\*</p>  
<p>같은 시각.</p>  
<p>유진건설 회장 유명한의 자택.</p>  
<p>아침부터 쉴 새 없이 번쩍번쩍한 고급 외제차들이 들락거렸다.</p>  
<p>이유는 하나.</p>  
<p>저녁에 있을 유진그룹의 초대 회장 유병철의 제사 때문이었다.</p>  
<p>재계 서열 1위 유명한.</p>  
<p>유병철은 그런 유명한의 아버지였다.</p>  
<p>장남인 유명한은 아무리 바쁜 일정이 있더라도 아버지 제사는 꼭 챙겼다.</p>  
<p>유명한의 입김이 워낙 막강하다 보니 매년 이날만 되면 유씨 가문의 친인척들이 한자리에 모여들었다.</p>  
<p>-모 증권 사장.</p>  
<p>-모 제약 회장.</p>  
<p>-모 백화점 사장.</p>  
<p>하나같이 쟁쟁한 인물들이 얼굴을 들이밀었다.</p>  
<p>자식들 또한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이 대부분이었다.</p>  
<p>딱 한 사람만 빼고.</p>  
<p>그 예외적 인물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한쪽 구석으로 가서 쥐 죽은듯 조용히 있었다.</p>  
<p>바로 유진호였다.</p>  
<p>'지겹다.'</p>  
<p>빨리 이 시간이 끝났으면.</p>  
<p>형님과 던전을 돌아다니는 게 백배천배는 더 즐거웠다.</p>  
<p>지금쯤 형님은 뭐하고 계실까?</p>  
<p>그러고 보니 형님은 쉬는 날을 어떻게 보낼지 감이 오지 않았다.</p>  
<p>그렇게 실없는 생각들을 하며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애꿎은 음료수만 축내고 있는데.</p>  
<p>어디선가 듣기 좋은 목소리가 들려왔다.</p>  
<p>"어이."</p>  
<p>아니나 다를까.</p>  
<p>누가 봐도 능력 있다는 걸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, 엘리트의 표본 같은 남자가 뒤에 와 서 있었다.</p>  
<p>고급스런 안경.</p>  
<p>훤칠한 키.</p>  
<p>유진호의 친형, 유진성.</p>  
<p>유명한을 대신해서 유진건설을 이어받을 유력한 후계자였다.</p>  
<p>코앞까지 다가온 유진성이 유진호를 내려다보았다.</p>  
<p>"친척들이 오시면 너도 인사를 좀 해라. 언제까지 아이처럼 굴 거냐?"</p>  
<p>"...남이사."</p>  
<p>"네가 못나게 굴수록 아버지 이름에 먹칠을 한다는 것만 알고 있어라."</p>  
<p>유진성의 말투에 형제애 따위는 조금도 없었다.</p>  
<p>노골적인 무시.</p>  
<p>물론 유진호도 그런 형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렇다고 형에게 대들 만한 용기는 없었다.</p>  
<p>"..."</p>  
<p>그도 그럴 것이.</p>  
<p>형 유진성은 손대는 분야마다 1등을 놓쳐 본 적 없는 수재 중의 수재였다.</p>  
<p>성적만 뛰어난 게 아니었다.</p>  
<p>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아버지 유명한의 일을 도와 모든 면에서 놀라운 성과를 보이고 있었다.</p>  
<p>그에 비하면 유진호는 뭐하나 내세울 만한 게 없었다.</p>  
<p>대학도 턱걸이로 들어간 수준이니.</p>  
<p>유진호는 항상 형 앞에만 서면 유독 작아졌다.</p>  
<p>"..."</p>  
<p>"한심하긴, 쯧쯧."</p>  
<p>고개 떨어뜨린 유진호를 보며 미간을 찡그리던 유진성은 곧 표정을 바꾸고서 바삐 걸음을 옮겼다.</p>  
<p>"숙부님."</p>  
<p>"오, 진성이냐."</p>  
<p>유진성이 떠난 뒤에야 유진호는 겨우 고개를 들 수 있었다.</p>  
<p>이래서 집에 오기 싫었다.</p>  
<p>제사만 아니었어도...</p>  
<p>유진호가 한숨을 푹푹 내쉬고 있는데, 뒤에서 곱지만 날선 목소리가 들렸다.</p>  
<p>"와, 대박. 완전 재수 없어."</p>  
<p>유진호가 돌아보았다.</p>  
<p>자신보다 한 살 많은 사촌 누나, 유수현이었다.</p>  
  
 </div>  
  
  
  
 </div>  
  
  
  
 <div style="margin-top: 20px;">